
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1. 3. 24(수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	철도운영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오수영, 사무관 고성우, 주무관 황선호 • ☎ (044) 201-4636, 4637 	
		자산운영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처장 최윤환, 부장, 김숙희, 차장 정길운 • ☎ (042) 615-4239, 4241, 4249 	
보 도 일 시		2020년 3월 2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3. 24.(수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

태양광 철도로 탄소 발자국 줄인다

- 24일 태양광 철도시설 업무협약 체결... 탄소중립·그린 뉴딜 선도 -

- 정부가 철도의 자원을 활용한 그린뉴딜에 적극 나선다.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저탄소 친환경 철도를 구현하는 그린 뉴딜사업으로 미래 철도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와 서울특별시(시장 권한대행 서정협) 및 한국철도공사(사장 손병석)는 3.24일(수) 서울시청에서 철도시설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“솔라 레일로드(Solar Railroad) 그린뉴딜 협력사업”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- 이번 협약식에는 손명수 국토부 2차관,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, 손병석 철도공사 사장이 참여하여,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,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.
- 이번 협력사업은 중앙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이 손잡고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태양광 ‘협력형 그린뉴딜’ 모델로서 그 의미가 깊다.
- 이번 협약으로 '22년 말까지 ①철도 차량기지 및 역사 주차장에 19.8MW, ②서울역 등 철도역사에 태양광 랜드마크 5.2MW 조성 등 총 2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공동 추진하게 되며,

- 이를 통해, 향후 연간 1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3,200만 KWh를 생산하여 30년생 소나무 약 22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.

<솔라 레일로드(Solar Railroad) 그린뉴딜 협력사업 예시>



<차량기지 태양광 발전단지(예시)>



<도라산역 임진각 철교 태양광>

- 한편,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이번 협력사업을 시작으로, 지자체·발전사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지속 확충하여 '30년까지 철도 분야 태양광 발전규모를 456MW*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* 서천화력발전소(무연탄) 발전용량(400MW)를 넘어서는 수준

- 아울러, 철도시설에서 태양광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통해 역사 내 전력공급 및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보급 등 철도역 이용자들의 편의제고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계획이다.

- 국토부 손명수 차관은 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나가는 철도는 전통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뛰어 넘어,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간으로서 발돋움하여 교통분야 2050 탄소중립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”한다고 밝혔다.

- 한국철도 손병석 사장은 “전국의 철도 인프라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‘태양광 발전소’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철도형 그린 뉴딜을 적극 추진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겠다”고 말했다.

*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(73천만톤, '18.): 수송 10천만톤(13.5%), 농업 2천만톤(2.9%), 에너지산업 29천만톤(39.5%), 제조업 및 건설업 19천만톤(25.6%) 등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고성우 사무관(☎ 044-201-4636),
 한국철도공사 자산운영처 정길은 차장(☎ 042-615-424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